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 조찬기도회가 23일 오전에 가든스윗호텔에서 열렸다.



인도 남부의 한 시장의 모습. ©arihant daga on Unsplash

## “인도, 기독교인 박해 지속적 증가”

인도복음연맹 종교자유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인도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박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종교자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325명의 기독교인들이 폭력, 위협, 학대 등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130명에서 2.5배 늘어난 수치다.

“이 수치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인 우타르 프라데시주와 이 지역의 극남쪽에 위치한 타밀 나두 지방에서 갑작스러운 폭력 사태가 연달아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이 보고서는 또 “자발적인 신고와 시민단체의 조사에 의존한 자료가 전부”라며 “대부분의 사건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두려움 때문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북부 주에서 경찰은 이 같은 사건들을 외면하고, 의무적인 최초 사건 보고서의 기록을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오는 4~5월 열리는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종교적 긴장을 더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의 증

오 발언은 종교, 윤리, 언어가 다른 이들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는 ‘촉매제’로 이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기독교 공동체는 무슬림이 다수인 공동체 안에서 박해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고서가 밝힌 사건에 따르면, 비하르 삼스티푸르 발삼사라이 마을에서 살고 있던 지텐드라 쿠마르 목사는 이 지역의 힌두교 우익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다.

이들은 쿠마르 목사가 살고 있는 집의 철문을 부수고, 목사의 아들과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심각하게 구타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다. 쿠마르 목사와 가족들은 경찰서로 연행됐고, 심문을 받은 뒤 풀려났다. 경찰은 쿠마르 목사에 대해 더 이상의 기독교 활동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가족들은 두려움 속에 지내야 했다.

전체 사건들(132) 가운데 40% 이상이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발생했으며, 이 지역은 지난 4년 동안 종교주의로 인한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기도 하다. 9월~12월 사이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 94건이 기록됐다.

강혜진 기자

##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 조찬기도회 “평화 위해 기도”

임시정부 수립 및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 조찬기도회가 23일 오전 7시에 가든스윗호텔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가 주최했고, 남가주교회, 남가주목사회,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 서부총회에서 공동주최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우리 조국과 삼일절’, ‘한반도 평화통일’, ‘한인커뮤니티와 차세대’, ‘북미정상회담과 세계평화’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는 사회에 정요한 목사(민주평통 LA협의회 종교분과 위원장), 인사말씀에 서영석 회장(민주

평통 LA협의회 회장), 대표기도에 장병우 장로(민주평통 LA협의회 종교분과 부회장), 성경봉독에 이명은 전도사(민주평통 LA협의회 특임간사), 특별찬양 남가주교회, 설교 박희민 목사(새생명선교회 대표), 축사에 한기형 목사(남가주교회 회장), 김관진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 황선철 장로(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 서부 총회장), 축도에 최학량 목사(민주평통 LA협의회 고문)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기도회에서는 안신기 목사(남가주교회 총무), 강태광 목사(남

가주목사회 총무), 모종태 장로(민주평통 LA협의회 상임고문), 정우성 목사(민주평통 LA협의회 자문위원)가 이끌었다.

한기형 목사는 “역사를 보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삼일 운동을 펼쳤다. 우리가 삼일운동을 벤치마킹해서 명실상부한 통일의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김관진 목사는 축사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삼일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쳤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그 뜻을 이어받아 기도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힘쓰자”고 말했다.

## 美 연합감리교, 동성애 반대 전통적 입장 지지

지난 수년 동안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두고 내부적인 논쟁을 지속해왔던 미국 연합감리교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가 지난 23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특별총회를 열

고 기존의 동성애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26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결정하는 투표에서 동성애에 대한 절충적 입장인 ‘하나의 교회 모

델’(One Church Plan)은 부결됐다.

‘하나의 교회 모델’은 교리와 장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배타적인 언어가 삭제되고 결혼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 아니면 ‘두 사람’의 결합으로 [2면에 이어서 계속]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562)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컬러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입니다

- 주일에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담임목사 한기홍

# 기독교일보

## 창립15주년을 축하합니다!

**은혜교회 예배안내**

성인주일예배 (VC)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교육부 주일예배 (MC)	영아~초등부 오전 9:20 / 오전 11:30	중·고등부 (EM/KM) 오전 9:20 / 오전 11:30
EM 대학부	오후 2:00	
청년부 예배 (GWPC)	목요 8pm(MC203) 금요 7:30pm(MC Cafe) 주일 2pm	
English Service 주일예배 (MC)	Main Service 오전 9:20 / 오전 11:30	
GWPC 은혜세계기도센터	(월~금)새벽 5:30, (토)새벽 6:00 / (월~토)오후 8:00	
양육과정	금요일예배 (VC)	오후 8:00
금요성경침례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EM 대학부	EM 대학부	오후 7:30
중고등부 (EM/KM)	중고등부	오후 8:00
동아교회 주일예배 (C&B)	오전10:00(C&B) / 오전11:30(VC)	
Jesus' Light (발달장애인)주일예배 (MC)		

**한기홍 담임목사 설교방송**

우리방송 AM 1230	오전 08:30(주 일)
JSTV 미국지역 CH 688(DISHNET)	오전 10:00(주 일)
CHTV CH 18.7	오후 12:00(주 일)
SAN DIEGO RADIO KOREA	오후 04:00(월요일)
CHTV CH 56.9	오전 04:30(화요일)
크리스천 에볼루션 방송 AM 1650	오전 05:30(수요일)
KCBS CHICAGO AM 1590	오전 10:20(수요일)
CTS 미국(DIRECTV) CH 2092	오후 08:00(수요일)
SACRAMENTO 복음방송 AM 1690	오전 10:00(목요일)
JSTV 미국지역 CH 688	오전 1:30, 5:30, 9:40
CH TV 18.88	오후 10:00(목요일)
라디오 코리아 AM 1540	오전 04:30(금요일)
CTS 미국(DIRECTV) CH 2092	오전 05:30(금요일)
미주 복음방송 AM 1190	오전 11:30(금요일)
CTS 한국(금)	오전 05:00(한국시간)
YTN FM 100.3	오전 10:00(금요일)
CGNTV	오후 10:00(금요일)
SCA FM	오전 00:00(토요일)
라디오 서울 1650	오전 09:00(토요일)
	오전 00:00(토요일)

**은혜한인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racemi.com  
 TEL : 714) 446-1000, 1004, 6200, FAX : 714) 446-6207  
 은혜세계기도센터(365일 24시간 OPEN) TEL : 714) 446-1005  
 예배: 5:30am, 8:00pm, www.gracewpc.com

**은혜한인교회**  
 그레이스미선대학 (G,M,U, 신학교) TEL : 714) 525-0088  
 Miracle Center #305호 www.gm.edu

**은혜기도원** TEL : 951) 277-1188  
 11985 Indian Truck Trail, Corona, CA 92883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St,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6200 www.gracemi.com**





미주복음방송이 2월 24일 주일 오후 5시안산시립합창단을 초청해 블레싱 콘서트를 남가주동신교회에서 개최했다.

# GBC 블레싱콘서트 성황리에 개최

미주복음방송(이하 GBC)이 안산시립합창단(지휘 박신화 교수)을 초청해 GBC 블레싱콘서트를 2월 24일 주일 오후 5시 30분에 플러튼에 있는 남가주동신교회(백정우 목사)에서 개최했다.

28년 동안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방송으로 24시간 복음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GBC는 이번 블레싱 콘서트에 대해, “크리스찬 문화사역을 통해 사회와 세대와 세대를 넘어 더 넓은 지역에 복음전파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백정우 목사가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GBC가 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한다. 이 콘서트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인사를 전하며 콘서트의 문을 열었다.

올해 블레싱콘서트는 세계합창연맹(IFCM)이 세계22개 합창단 중 하나로 선정한 안산시립합창단이 함께 해 “알렐루야(Alleluia)”, “에레스투(Eres tu)”, 모짜르트의 터키행진곡(Turkish March), 신상우의 ‘하나님의 은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를 비롯해 ‘벧노래’, 오병희의 ‘어 랑’, 우효원의 ‘8소성(八笑聲 Eight Laughing Voices)’ 등을 선사했으며, 동신트리오(피아노:서지영,

바이올린, 황여주, 첼로:서영주)가 프란츠 안톤 호프마이스터의 ‘Duet for violin and violincello’, 북의 근원 강림하사, 시편 23편을 연주했다.

공연에 이어 이영선 목사(GBC미주복음방송 사장)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서 목사(OC교협 회장)의 축도로 콘서트의 막을 내렸다.

이번 블레싱 콘서트에 함께 한 안산시립합창단은 1995년 창단되었으며 2011년 바티칸 초청공연, 2015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개최된 미국합창협회 전국모임, 2017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11회 세계합창심포지엄 등을 통해 높은 예술성과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1면 ‘연합감리교’ 에 이어서] 선택할지에 대해 각 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대신 총대들은 ‘전통적 계획’(Traditional Plan)을 438(찬성) 대 384(반대)로 승인했다. 이 계획은 동성애, 동성 결혼 및 동성애자 성직 허용에 반대하는 교단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러한 원칙을 더 잘 시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신학적으로 보수 성향인 종교 및 민주주의 연구소의 마크 톨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하나의 교회 모델’이 부결된 것에 대해 “아프리카 필리핀 유럽 대표단의 참여가 결정적이었

다. 이들이 미국의 주류 개신교가 붕괴되는 근경에서 그들을 구해냈다”고 글을 올렸다.

코트디부아르의 총대 블레 레울 나단 에이크(Ble Leon Nathan Ake)도 전통적 모델에 찬성한다면 “성경은 우리가 말씀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성경적 방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16년 총회에서 감리교단은 LGBT 문제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결성했다. 신학적으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지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논쟁을 종결시키고자 했다.

이미경 기자

# 미주장신 첫 번째 북 콘서트

미주장로교신학대학에서 오는 3월 13일 수요일 12시20분-1시10분까지 미주장신 채플실에서 김일권 교수(신교학)의 『우드베리의 이슬람 선교신학』을 가지고 제 1회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상명 총장의 축사에 이어, 김일권 교수가 책을 소개하고, 학생처장인 김루빈 교수가 서평을 전한 후 질의 응답 및 저자 사인이 있을 예정이다.

이 책의 저자인 김일권 교수는 1992년 오렐리온신학교 선교사로 지원했고 지금까지 오렐리온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는 윌리엄 캐리 국제대학교 박사과정(Ph.D.)을

통해 서구 최고의 이슬람 선교학자, 더들리 우드베리가 정립한 기독교 이슬람 선교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미주장로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로 있다.

윌리엄 캐리 국제대학교 박사과정(Ph.D.)을 통해 서구 최고의 이슬람 선교학자, 더들리 우드베리가 정립한 기독교 이슬람 선교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출판사에 따르면, 이슬람 한복판에서 선교사역을 한 기독교 이슬람 학자 더들리 우드베리(J. Dudley Woodberry's)의 연구서는 한국교회 이슬람 선교에 취할 방향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 “교회는 건물 아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넘치는 곳”



선한믿음교회가 창립 8주년을 맞아 예배당을 이전하고 설립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선한믿음교회 설립 8주년 맞아 예배당 이전하고 초심 회복 다짐

올해로 창립 8주년을 맞은 선한믿음교회(담임 박종진 목사)가 한 인터뷰 6가와 카탈리나 길에 위치한 건물로 예배당을 이전하고 설립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박 목사는 “8주년을 맞아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성도들의 성령충만을 통해 영적건강과 회복에 힘쓰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갈라디아서 5장 15-24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박 목사는 좋은 교회란 건물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거짓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자”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고재원 목사(미주백석 증경노회장)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많은 성도들을 깨우고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되라”고 전했다. 이어 마틴철 목사(리퍼어셔번트 대표)가 <매일스치는 사람들>이란 곡으로 축가를 부른 후 고재원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선한믿음교회의 주소는 3407 W. 6th St., 407 LA, CA90020 주일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린다.

문의: 626-807-3486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http://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http://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http://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mailto:summitus37@gmail.com)

**GRACE ·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미션대학**

**Grace Mission University (GMU)**

2019 봄학기 접수중

기독교일보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건강한 인격, 강한 군사, 세계선교

**GMU 학생이 누리는 특권**

- 유학생 1-20 발행
- 연방정부 장학금 및 학비용자 (FSA)
- GMU 장학금 & 국제총회 교단 장학금 수여
- 미국 유수 학교들과의 학점 교류
- 각 프로그램 별 다양한 emphasis 제공 (선교학, 상담학, 리더십, 교육학 등)
- 통신(on-line)으로 학위 취득 가능
- 잘 확립된 커리큘럼과 뛰어난 교수진
- 졸업생 진로 안내 및 사역 후원
- 최고 시설의 도서관과 강의실
- 영어권 학생을 위한 English Track 운영

**On-line 통신 과정**

- 본교 출석 학생과 동등한 학위 취득
- Moodle 통신 수강 시스템을 통한 수업
- 학교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 원서접수 ([www.gm.edu](http://www.gm.edu))
- 강의 후 48시간 이내에 온라인 수강가능
- 실시간 동시 Live 강의
- 출석 수강과 통신 수강 혼합가능
- 온라인 도서관을 통한 e-북 & 연구자료 제공

**학위 과정**

- 학사 (B.A, 4년 과정)
- 석사 (M.A.I.C.S, 상담, 리더십, 선교 전공)
- 석사 (M.A.C.E, 기독교 교육)
- 목회학 석사 (M.Div.)
- 선교학 박사 (D.Miss.)
- 다문화철학박사(PhD)

미국의 뛰어난 복음주의 신학교 중의 하나인 GMU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예장 국제총회 신학교인 GMU는 TRACS(미국 기독교학원 연합), ABHE(성경고등교육 연합), ATS(신학대학원 협의회) 정회원으로서 미 연방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위를 수여합니다.

GMU는 학생들의 상담기술, 리더십, 신학적 지식과 목회 기술의 습득을 도우며, 전도, 선교, 제자양육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도록 지원합니다.

\*본교가 등록된 미국 대학교 인준기관: [ats](http://ats.org), [tracs](http://tracs.org), [abhe](http://abhe.org), [bppe](http://bppe.org), [chea](http://chea.org), [ed.gov](http://ed.gov)

입학문의: [admissions@gm.edu](mailto: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http://www.gm.edu) 이메일: [gm@gm.edu](mailto:gm@gm.edu)  
714.525.0088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21일 3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GMS 미주해외선교사 훈련 수료식 및 임명식 후 단체사진



송정명 목사(좌), 이정근 목사(우)

# “다시 복음 앞에 헌신합니다”

## GMS미주 OMTC 제 6기 선교사 훈련 수료식 및 임명식

총회세계선교회 GMS(Global Mission Society)가 지난 21일 오후 3시 은혜한인교회에서 GMS 미주 해외선교사(OMTC) 훈련 수료식과 임명식을 거행했다.

GMS선교회는 5주간 미주 OMTC 선교사 훈련을 통하여 GMS 장기선교사를 배출하고 있다. 미주 OMTC 선교사 훈련은 현재 타문화권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를 허입하는 특별과정 훈련이다.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하는 정식 장기훈련 과정이다. 이 훈련에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21일까지 5주 동안 30여명의 선교학자, 목회자, 선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OMTC훈련원 관계자는 “수준 높은 선교학 강의

와 현장감이 넘치는 현장의 목소리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목회자들의 도전을 통해 훈련생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복음 앞에 헌신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로운 훈련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식에서 1부 순서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민찬기 목사의 사회, 이억희 목사의 기도, 김명자 미국지부장의 성경봉독과 GMS김정훈 이사장의 “예수님을 따라 사서 고생하라”는 설교 말씀으로 진행됐다. 2부 임명식에서는 이병구 OMTC훈련원장 사회, 선교사 파송 안수기도, 이사장 GMS 선교사 임명장 수여, GMS전철영 선교총무

의 축사, GMS아메리카 지역 조운제 지역장의 축사, 총회 부회록서기인 박재신 목사의 격려사, LA총회선교교회 선교목사 김주원 목사의 격려사, 김경환 선교사의 답사, 박동주 브라질 선교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 훈련을 통해 5주간 훈련을 완주한 8명이 선교사로 임명 받았다. GMS선교사로서 임명 받은 선교사는 정진용/김가현 페루선교사, 여용주 브라질 선교사, 성대현 미국 나바로 선교사, 유성희 말라위 선교사, 조이삭 코스타리카 선교사, 김경환 한국 중동 사역 선교사, 김원식 이슬람 태권도 선교사 등으로 각각의 선교지로 파송됐다.

## ‘후손들에게 귀중한 자료’ 성결인명사전 개정증보판 출판

### 목회자부터 집사까지 성결인 1410명 수록 총 1264면으로 구성돼

한국성결교회 선교 110주년을 기념해 발간된 ‘성결인명사전’ 증보개정판 출판 보고를 위한 기자회견이 21일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책 출판에 기여한 이정근 목사와 송정명 목사가 참석해 출판 배경을 설명했다.

이 책은 한국성결교회문화선교회에서 2008년에 성결교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출판된 ‘성결인명사전’을 증보개정판으로 발간한 것으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미주성결교회,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 세계복음선교연합회에서의 성결인 총 1410인이 수록(소천인 460명 포함), 1264면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교단 지방회장 추천, 사전편집위원 추천으로 인사들이 선정됐다.

편집위원들로는 백수복, 위영, 김종만, 석희구, 정병수, 정영남, 박용석, 김보현, 최인식, 지양근, 곽일규,

조남진(호칭 생략) 등이 참여했다.

미주성결대학교 초대총장 이정근 목사는 “이 책은 우리 동시대인들과 특히 오고 오는 후손들을 위한 매우 귀중하고 효과적인 신앙교과서가 될 것”이라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신앙의 영웅들을 통해 구원사역을 차근차근히 이루어가시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미주평안교회 원로 송정명 목사는 “성결교 이민역사가 짧은 편이지만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의 삶을 발굴하고 그들의 생애와 사역을 인물전이나 인명사전 등 책으로 엮어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남겨주겠다는 것은 너무 귀한 사명이다”라고 출판평을 했다. ‘성결인명사전’은 120불이고 구입 문의는 이치찬 장로에게 하면 된다.

문의) 213-840-0853

토마스 맹 기자

## 베델교회, The Zero by 2020 Vision 위탁 입양 세미나 개최



The Zero by 2020 Vision 위탁 입양 세미나 강사진

얼바인에 위치한 베델교회는 3월 2일(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교회에서 오렌지카운티 주민을 대상으로 “The Zero by 2020 Vision 위탁 입양 세미나”를 연다.

방송인 신애라 집사가 직접 강사로 서 간증을 전할 계획이다.

베델교회는 이번 세미나와 관련해, “지난 2017년 8월, 매리너스 교

회, 새들백 교회 등 30여개의 미주류 교회들과 오렌지카운티 사회 복지국, OC United and Olive Crest 비영리 단체가 만나 The Zero by 2020 Vision (www.zero2020vision.com),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필요로 하는 오렌지카운티의 모든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기” 단체를 발의했다”고 전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60년 이상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아주 훌륭한 양육 시설일지라도 가정 아님 양육 시설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정신적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형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이들을 키울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밝혀졌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정위탁제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신체적, 정서적, 성적학대, 방치, 버림 등 친부모와 거주하는것이 안전하지 않은 아이들은 위탁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정을 잃고 갈곳이 없는 아이들을 돌봐줄 안전한 보금자리가 늘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오렌지카운티에만 위탁과 입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3000여명이며, The Zero by 2020 Vision 운동은 2020년까지 이 숫자를 zero로 만들자는 운동이다.

## 예은장로교회

### 찬양대 지휘자 모집

예은장로교회가 찬양대 지휘자를 찾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성실하게 믿음으로 섬길 음악 전공자

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력서를 kwakchurch@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213-458-2505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타일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운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리십시오 오세로~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신승훈 담임목사

### 예배안내

-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30
- 3부예배 오후 1:00
- 라티노 오후 6:30
- GCEM 오후 1:00
-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 기독일보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101>

### 애틀랜타 사역자 콘퍼런스를 마치고(2)

매년 열리는 사역자 콘퍼런스는 북미주 지역에 약 50여개로 분포되어 있는 각 지부의 비전스쿨을 섬기는 간사 및 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모인다. 필자의 교회는 콘퍼런스, 비전스쿨, 그리고 선교캠프 등을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두어 전교우들이 참여하게 한다. 선교훈련에 관한한 선교단체의 훈련이 전문적이고, 이상적이라고 믿기에 대부분의 교육을 선교단체의 훈련 과정에 따르고 교회가 선교지향적 교회로 나가려고 애를 쓴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인터콥 선교회에선 각 지부에서 헌신된 사명자들을 훈련시킨 뒤에 간사로 임명하여 사역하게 한다. 필자의 교회도 20여명의 교우들이 훈련받고 간사로 사역한다. 한인 1세대뿐 아니라 EM 청년세대는 물론 다민족 교회와 목회자까지도 참여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사우스베이의 한 필리핀 교회가 교회전체로 간사교회 임명을 받았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주님의 제자들이 열방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로 일하고 있음은 본다. 그것이 선교하는 우리들의 꿈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다만 그의 종이 되어 섬길 뿐이다.

그때부터 엄청난 중보기도가 함께 시작된다. 필자는 스마트폰과 SNS 네트워크가 이들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도구로 발명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스마트폰은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의 전세계 중보기도의 네트워크로 거의 사용된다. 간사사역자들의 휴대폰은 거의 중보기도와 선교연합의 도구이다. 필자는 비전스쿨이 시작되면 강사로 오는 현지선교사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난 10여년간 계속 새로운 선교사들의 강의는 필자에게도 항상 도전이 되고, 큰 깨달음을 갖는 명강들이었다. '영적 전투', '중보기도', '이슬람의 문화', '선교정책' 등의 주제로 현역 선교사들의 말씀을 들어 보기를 권한다. 그들의 입에서 절망적 표현을 듣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만을 전한다. 희망이 있다. 가장 어렵다는 이슬람 선교지의 최전방에서 어린 자녀들을 현지어인 학교에 보내며 사역하면서 기도 기쁘고 밝게 사역한다. 어찌 어려움이 없을까? 어찌 눈물이 없을까? 그것들조차 모두 기쁨으로 이겨내는 것이리라. 비전스쿨에 참여하면 강의와 섬김을 통해 많은 가치관들이 아름답게 바뀌어진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목회자였던 필자도 그랬다. 이렇게 인터콥 선교회의 '선교사역자 콘퍼런스'는 매년 열리는 형식적 행사가 아닌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을 위해 삶으로 참여하면서, 더욱 굳건히 지상 대명령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하고 있다.

콘퍼런스에서 예배와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된 주님의 일꾼들이 각지부에서 곧이어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비전스쿨'이다. 북미주 전체에서 일년에 두 번씩 있는 '비전스쿨'이 3월 첫주부터 10주간 진행된다. 지역교회와 성도들에게 선교비전을 제시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훈련이다. 목회자 비전스쿨도 있다. 엘에이를 포함 미주에서 5개가 열린다. 미주에는 100여명의 선교회 지도목사들이 있다. 또한 미주 50여개 지역에서 일반비전스쿨, 여성비전스쿨, 캠퍼스비전스쿨, 유스 비전스쿨, kid's 비전스쿨, 다민족 비전스쿨등이 동시에 열린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만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쥐의 피해가 너무 심해 온 국민이 쥐잡기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필자도 초등학교 시절에 쥐꼬리를 모아서 학교 선생님께 제출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쥐를 잡은 증거로 쥐꼬리를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는 숙제였지만 그때는 모두 쥐꼬리를 싸서 들고 등교를 했습니다. 당시 쥐를 잡기 위해 쥐가 다닐 만한 곳곳에 쥐약을 놓았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그런데 쥐가 먹어야 할 쥐약을 개들이 먹고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진돗개 주인이 자신의 진돗개가 쥐약을 먹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며 자신의 개를 훈련시켰습니다. 개 앞에 고기를 두고 주인이 허락 없이 그 고기를 먹으려 하면 매질을 했습니다. 대신 고기를 보고도 덤비지 않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면 큰 보상을 주었습니다.

이 훈련을 수십 번 반복하니 그 개는 고기를 함부로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앞에 있어도 함부로 덤비지도 않습니다. 고기가 보이면 먼저 주인의 얼굴을 봅니다. 주인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먹으려는 주인의 신호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음식에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개는 훈련을 통해 인내하며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에게 인정받는 기쁨을 위해 인내한 개는 영리하고 근사한 개가 되었습니다.

종종 인내하지 못해 망하는 인생을 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인내 후의 결과를 기대하며 인내합니다. 인내는 믿음을 전제합니다. 인내 후에 누릴 기쁨의 결과를 믿는 만큼 인내합니다. 참고 견딘 후에 누리게 될 유익과 혜택 그리고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딤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인내합니다. 야곱이 인내하고 요셉이 인내합니다. 모세도 다윗도 인

내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상한 기쁨을 위해 당면한 아픔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인내의 화신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의 삶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르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인내하신 예수님의 삶을 잘 표현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견디셨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견디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이기신 인내의 이유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치욕을 참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쁨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능욕과 고통을 이기셨을까요?

랜디 알콘(Randy Alcorn)은 자신의 책 <행복(Happiness)>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이기신 주님의 기쁨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가 전하는 십자가를 이기신 주님의 기쁨을 거칠게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기쁨 드린 기쁨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 아버지

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백성들을 구원 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모질게 아픈 고통과 수치를 구원받는 백성들을 보면서 참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구원을 기뻐하며 십자가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처럼 행복하려면, 우리도 이웃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위해 앞에 있는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에게 기쁨 주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기뻐하는 것을 상상하시며 고난을 이기셨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기쁨을 생각하며 밤늦게까지 피곤을 잊고 일을 합니다. 타인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빛나는 삶입니다. 수바 이처나 나이팅게일의 삶이 빛나는 이유가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쁨을 추구할 때 '성자'가 됩니다. 타인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행복입니다.

존 파이퍼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역사상 가장 행복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쁨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했던 사람들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기쁨을 실천한 사람들은 후대가 기억하는 삶을 삽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님처럼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 폴 아트 리 '십자가의 사랑' 주제로 개인전

크리스천 미술 작가 폴 아트 리 (Paul Art Lee)가 23일(토)부터 3월

9(토)일까지 산타 모니카에서 개인전을 연다. 홀리원교회 목사이자 작

가인 폴 아트 리 씨는 "십자가의 사랑이야기"의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개인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야기를 개인적인 고백을 통하여 제작한 작품들을 전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나무 갤러리, 춘천미술관 등을 비롯해 미국의 행가 갤러리, 파크 뷰 갤러리, 아레나 갤러리 등에서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전시장소: Arena 1 Gallery (3026 Airport Avenue, Santa Monica, CA 90405) 문의 310 606 9255, www.paulartlee.com



폴 아트 리의 작품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

### WORLD DAY OF PRAYER



예배문 작성국 : 슬로베니아

## 2019년 세계기도일 예배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누가복음 14장 15~24절)

Come! Everything is ready!

세계기도일예배는 세계 180여개 나라의 교회여성들이 매년 3월 첫째 금요일에 함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초 교회 연합 예배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주제로 예배함으로 지구 자전과 함께 24시간 여성들의 기도가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132년의 역사와 함께 인종, 문화, 성별, 빈부, 인간과 자연의 불화와 분쟁을 넘어 하나님 나라와 평화실현을 결단하는 예배입니다. 한국은 1922년 시작해서 1932년 김활란 선생님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1963년 「이기는 힘」(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1997년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란 주제로 예배문을 작성하여 전 세계 교회여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시 : 3월 9일(토) 오전 10시

장소 :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A, CA 90004

문의 : 562-569-9133

남가주 지부  
회 장 : 유화진 권사  
부회장 : 조진숙 권사, 장영란 장로, 김민선 집사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Korean Church Women United USA



# 인생고난 해결 위한 예수님의 고난

이사야 53:1-6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이사야 53:1-6

성경을 전체적으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의 기대가 얼마나 간절하시고 크셨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세대동안 우주 공간에 있는 만물을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옛세대 흠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산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늘과 땅, 땅아래 물속의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불행하게도 마귀의 꾀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면서 범죄하여 결국 영적 소속이 하나님으로부터 마귀에게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인생고(人生苦)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오랜 세월 수종들던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여 자신이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천사와 패거리들을 하늘나라에서 추방시키셨고 그들이 이 최악 세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꾀에 빠진 이브와 그 남편 아담의 실수로 인해 인류의 죄는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영생할 수 있었던 자격을 박탈당했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그들의 죄 값으로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치며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노역을 해야 연명(延命)할 수 있으며 결국 죽어서는 지옥에 가게 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창3장).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실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자기 아들을 희생 양으로 그들의 죄 값을 대신하여 죽게하시고 이 구속의 복음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을 받아 체함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값으로 인한 저주와 지옥 형벌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전에는 피조물이었던 인간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파송시켜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늘나라까지 데려가 주시게 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예언하게 해오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내용이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세계 역사가 증

거하는 역사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교리를 듣고도 회개치 않음**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했습니다. 이것은 전해지는 핵심적 구원의 교리와 진리와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하나님의 팔이 누겨 나타났느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구원 얻은 사람이 누구냐는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적 의지나 결단으로 천만번 다짐을 하고 사람의 방법이나 수단으로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진리의 교회로 불러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워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 그 목자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무디고 완악한 마음을 찢러 찢개면서 회개를 촉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 값으로 인한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이 복음의 역사는 인생고난의 해결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신 고난 덕분입니다.

### 예수님의 외모와 고난에 대한 묘사

2절은 예수님의 외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갈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700년 후에 세상에 동정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체적 사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본인의 생애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바 되었으며 사람들이 외면할 정도로 멸시당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힘든 고통을 많이 겪으며 고통이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지 직접 겪어 아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4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의 지옥갈 수밖에 없었던 절망과 슬픔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틀에서 모진 고통 가운데 대신 벌을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유대인들은 그가 자기 죄 값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했다고 오해할 것이라는 것까지 700년 전에 예언으로 미리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기 바빴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셔서 우리가 지은 죄 값으로 지옥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아들을 대신 보내 죽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지붕을 뚫어 중풍병자를 내린 사람들

마가복음 2:1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계시던 집에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이미 발 들여 놓을 틈이 없었기에 그들은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그 믿음이 참으로 가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앞까지 왔다는 그 자체를 믿음의 행위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실 것이라는 믿어지는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 어려움 속에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중풍병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는데 마가복음 2:5에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하십니다.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을 얻게 된 것은 그 죄 값으로 인함인데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으니 중풍병으로 더 괴로운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듣기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사람으로서 어떻게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지 참으로 참람한 말

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쉬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막2:8-10)”하십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했습니다.

### 성령을 모신 후 소망과 평안 기쁨 갖들어

죄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타락한 인간인 자기 본성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불행의 불씨가 되는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회생시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모셨다는 것은 지옥 형벌의 저주스러운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죄책감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으로 생기와 소망 넘치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들 생활전폭에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미국 정착의 지름길**

#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국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법전문뉴스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국 중앙 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 213.251.5554

[www.davidlimlaw.com](http://www.davidlimlaw.com)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 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 37% 미세혈관 합병증
- 21% 당뇨병 관련사망
- 14% 심장마비
- 12%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て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이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트렌튼장로교회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도회와 관련, "자유, 평등, 평화가 보장되는 통일"이라는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제시했다.

### 트렌튼장로교회 "자유, 평등, 평화 보장되는 통일 기도해야"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많은 기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지역의 한 한인교회가 '자유, 민주, 평화를 기반으로 한 통일'이라는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제시해 관심을 모은다.

뉴저지 트렌튼 지역에 위치한 트렌튼 한인장로교회(당회장 황의춘 목사, 담임 최치호 목사)는 24일 주일 교회 전체 성도들이 공유할 기도제목과 관련, "대한민국의 남북통일이 단순히 전쟁이 없는 통일이 아니라 자유, 평등, 평화가 보장되는 자유 민주 평화통일이 되도록 기도하자"고 공지했다.

트렌튼한인장로교회는 매주일 한주간 동안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공동의 기도제목을 정해 공지하고 있으며 이번 주간은 특별히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한 주제로 기도제목을 정했다. 성도들은 매주 금요기도회에서도 공지된 기도제목을 두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최치호牧사는 이번 주간 기도제목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 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기도는 마땅히 자유와 평등, 평화가 보장되는 통일"이라면서 "물론 전쟁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자유 등 더욱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할 가치가 있음에도 이를 빠뜨리고 무조건적 통일을 교회가 이야기 할 수는 없다"고 강조

했다. 이에 최치호 목사는 "통일이라는 단어에는 적화통일이나 북한이 추구하는 연방제 통일 또한 포함된다"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으나 통일이 과연 어떠한 통일인가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치호 목사는 미주에서 목회하기 전 말레이시아 지역에서 한인교회를 담임한 경험이 있다. 최치호 목사는 이 목회 기간 동안 한 탈북 성도로부터 북한의 자세한 실상을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치호 목사는 "북한 공산정권은 철저히 하나님이 없다는 체제였고 북한동포들이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곳이었다"고 말했다. 최치호 목사는 축도할 때 빠지지 않고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와 북녘 땅의 죽어가는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한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치호 목사는 "연평도 포격 당시 한국에 있었는데 실제적인 공격을 받은 실제 상황임에도 정작 사람들이 무감각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기도가 절실하다. 해외 디아스포라 700-800만이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고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고 지금이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태원 기자

### GSM 세계중보 기도회 "생명까지 선교에 드리자"



GSM 2월 세계중보 기도회

GSM 선한목자선교회(대표 황선규 목사)는 지난 14일, GSM 선교관에서 있는 기도회를 열고, 지난 1월과 2월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된 선교의 밤과 GSM 후원자 및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GSM 섬김이 대표 황선규 목사는 마태복음 20: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는 말씀으로 설교했다.

황 목사는 "자신이 GSM 국제대표라고 호칭하지 않고 섬김이라고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 GSM 회원들이 더 친근함을 가진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사람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보다 수평적인 관계에 더 친근한 호칭이 아닐까 생각한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고 오하려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섬기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목사는 "빌립보서 2장 6-8절(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를 인용하며, 우리의 삶이 마음으로 섬기고 물질로도 섬기고, 혹은 선교사로

혹은 교회의 봉사료, 혹은 전도자로 섬기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뛰어넘어 생명까지 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6절(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처럼 오직 목자나 선교사나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의 대속제로 주셨으니 우리의 생명도 마땅히 형제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험벗고 굶주린 자들을 보살피며 사회 복음화를 이뤄 가자"고 말했다.

한편 GSM 선한목자선교회는 2019년 목표를 전방 선교사 1,300명 후방선교사 1,400명, 총 2,700명 목표로 거의 도달해 2020년 목표인 전방 선교사 1,500명 후방선교사 1,500명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폴 원 기자



#### LA 지역

주일에 오전 11:00  
주일에 오전 2: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영혼의 속박을 받지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

주일에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토요일 예배 오후 9: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E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2세대를 막기 위해,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승중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7와 카밀리아),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일 미지리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nti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빙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유초등부 오후 10:30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을 휘어)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유초등부 오후 11:00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침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후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민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08:30 영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www.churchla.org

1부예배 오전 10:30  
2부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김경철**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 (월)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8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인근 일대입니다)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유년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후 6:00(토)  
중고등부 EM 오후 12:30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열왕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www.lasa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부/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6:30 EM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차부, 유년부, 유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 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u@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월요일예배) (소액함)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믿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양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유아/이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김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 4952 F. (213) 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초점을 둔 교회, 바른교회의 초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차부/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청년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213)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대)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한**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이민이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의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유초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 새 생명을 함께 나누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라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Awana 오후 8:00(금)  
중국어성경부 오후 7:30(토)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매일(토) 월-금 오전 6:00  
오전 11시(본성전)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영찬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P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818)383-5887 Tel. (323) 837-09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100년 전 3.1혁명에 결정적 역할 했던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3.1운동과 통일포럼’, 국회서 열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3.1운동과 통일 포럼’이 25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김형석 박사(연세대 명예교수)와 윤경로 박사(전 한성대 총장, 역사학자)가 발표하고,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와 황민호 교수(숭실대 사학교)가 논찬했다.

먼저 ‘3.1 정신의 현재적 의미와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김 교수는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3.1운동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점”이라며 “여러 측면이 있지만 생활단위가 크게 변했다. 3.1운동 이전 우리의 생활단위는 나와 내 가정, 내가 속한 직장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3.1운동을 겪으면

해, 3.1운동으로 시작한 국민적·국가적 에너지를 묶어 마음을 열고 함께 노력하자. 이것이 바로 3.1운동의 정신이고 우리 민족 국가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논찬한 소강석 목사는 김 박사가 따로 언급하지 않은 3.1운동과 기독교의 관계를 설명했다. 소 목사는 “100년 전 3.1운동을 한국교회가 주도하고 이끌어 갔다면, 미완의 3.1운동도 한국교회가 완성해 나가야 한다”며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3.1운동 사료나 독립운동가의 행적 및 업적을 발굴하고 드러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한국교회가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미완으로 남은 3.1운동을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3.1독립만세운동의 역사성과 교회의 역할’을 제목으로 발표한 윤경로 박사는 “3.1운동은 한국 근현대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운동 중의 하나에 불과하지 않다”며 “3.1운동은 타율적 개혁 이후 왜곡되게 전개된 정치사회적 제반 모순을 극복할 목적으로 진행된 여러 모양의 국·민권운동 등이 모이고 쌓여 큰 강을 이룬, 한국 근현대사를 구분하는 대 사건”이라고 했다. 윤 박사는 “다시 말해 3.1운동은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닌 혁명이었던 것”이라며 “황제가 통치하던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3.1운동의 혁명성은 충분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그리고 그 중심축 역할의 한복판에 교회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한없는 자긍심을 갖는다”며 “100년 전 3.1혁명을 견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다했던 한국교회와 선배 기독교인들의 정신 및 희생적인 헌신이 오늘날 과연 어떤 지경에 처했는가에 대한 깊은 회개와 자기 고백을 넘어, 새로운 각성과 다짐, 무엇보다 3.1 정신의 현재성을 깊게 성찰하고, 이를 어떻게 구현·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범 교회적 운동이 내적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논찬한 황민호 교수는 “3.1운동과 관련된 교계의 역할에 대해서는, 개항 이후 조선에 찾아온 개신교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교육과 봉사에 대해서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이후 6.25 한국전쟁과 4.19혁명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했다는 그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선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선진국가는 법이 아닌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다. 즉, 윤리 도덕 종교 등의 선한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했다. 김 박사는 “정치가 정치를 통해 국민생활을 도와주어야 한다. 정치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 정치가 목적이면 국가주의가 된다. 국민이 불안해진다. 정치는 국민이 잘 살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기업가는 기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제적 혜택을 주고, 교육자는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정신을 일깨워주며, 예술가는 예술을 통해 국민생활에 정신적 행복을 줘야 한다. 그래야 질서사회로 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질서사회로 가기 위해, 앞으로 통일한국을 세우기 위

3.1운동 100주년 기념  
100명의 시각장애인에 빛을

보건복지부 장기이식등록기관 (사) 생명 나누는 사람들(이사장 임석구 목사)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어둠 가운데 광명의 빛을 소원하는 시각 장애인 100명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찾아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실명 위기에 놓였던 윤은혜(가명, 56세)씨는 지난 12일, 감리교회 후원으로 전주 온누리안과에서 각막이식 수술비를 지원받아 성공적으로 각막이식 수술을 진행했다.

씨는 지난 2015년, (사)생명 나누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진행된 각막이식 수술로 오른쪽 눈의 시력을 약간 회복하여 오른쪽 시력만으로 생활하여 왔다. 그러던 중 최근 왼쪽 눈이 각막이식 수술을 진행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 있다는 의사의 권고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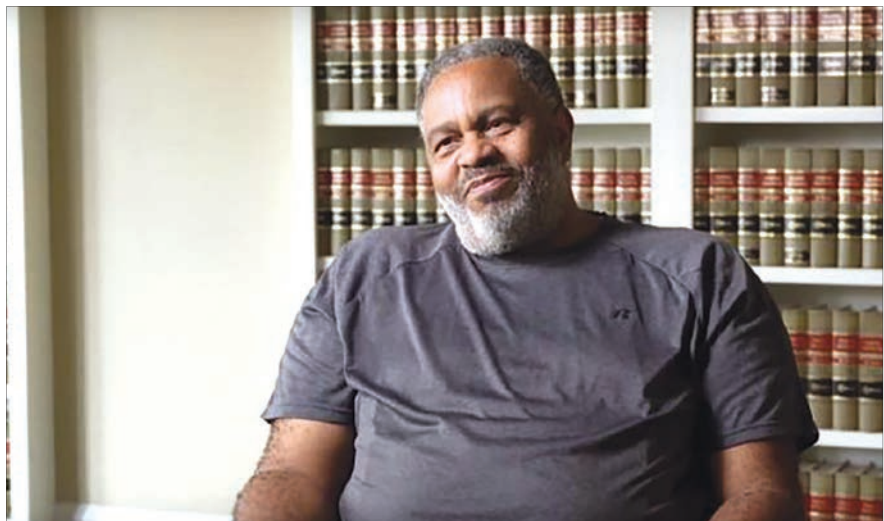
윤씨가 잘 안 보이는 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임시직인 아르바이트 정도였고 치료를 받을 때에는 아르바이트 일도 쉬어야 하는 환경이었다. 고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로 대학을 준비하던 윤씨의 딸은 어머니와 수술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진학을 포기한 상황.

(사)생명 나누는 사람들은 병원 사회사업실로부터 수술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해 들었고, 지난 2015년도에 이어 올 해에도 각막이식수술비 전액과 향후 치료비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각막이식 수술을 받게 된 윤

김신의 기자





앤서리 레이 힌튼. ©Christian Headlines 영상캡처

# 수감됐다 30년 만에 풀려난 사형수가 전한 하나님의 은혜

3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가 무죄로 풀려났던 남성이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다. 주인공은 앤서리 레이 힌튼(61).

1985년 두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매니저에게 총을 쏘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힌튼은 30년 간 교도소에 수감됐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증인도 없었고, 사건 현장에서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힌튼은 다른 매장 직원이 용의자 사진에서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죄수의 신세가 됐다. 경찰과 검찰은 힌튼의 모친 소유의 권총이 살인에 사용됐으며 기소했으나 힌튼은 체포 당시부터 무죄를 주장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뻔 했던 그였으나 2002년 미국에서 손꼽히는 총기 감식 전문가 3명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탄환 증거와 검찰 측에서 제시한 힌튼 모친의 권총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증언해 새로운 재판의 기회를 얻었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연방대법원은 2014년 '헌법상 필수적인 내용이 결핍된 판결'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2015년 결국 앨라배마주 순회법원의 로라 페트로 판사는 증거 불충분을 들어 두 건의 살인 혐의를 모두 기각했다. 최근 크리스천헤드라인(Christian Headlines)과 인터뷰를 가진 그는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고 간증했다. "처음 무고하게 사형을 선고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실패하셨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평생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당시에는 하나님이 실패하셨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이들을 위한 사역자로 그곳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는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도 뒤편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자유했다"면서 "30년 동안 살인자로서 봉사해 온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교도소로 부르셨음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모두는 죽게 돼 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즐기며 살았을지라도 내일은 장담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The Sun Does Shine: How I Found Life and Freedom on Death Row'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했고, 이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강혜진 기자

# “남이 아닌 나의 삶을... 날 정의할 분은 오직 하나님”



팀 티보 ©페이스북

미식축구 선수에서 야구선수(뉴욕 메츠)로 전향한 팀 티보가 비난을 극복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을 나눈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이 영상은 약 47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플로리다 포트 세인트 루시에서 열린 뉴욕 메츠의 봄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티보는 먼저 '야구선수로 성공할 수 없다는 비난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티보는 플로리다대학교 미식축구 선수로 활동하며 전국 최고의 선수에게 돌아가는 헤이즈먼 트로피를 수상했고, NFL 선수로 뛰었다. 이후 잠깐 TV 해설자로 나서기도 했다. 그러다 2016년에 야구선수로 전향했고, 이 일로 많은 비평가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티보는 "주관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항상 청년들에게 '세상이나 타인에 의해 정의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은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넌 하지 않을 거야, 넌 할 수 없을 거야, 넌 해서는 안돼'라고 말하는 이들은 항상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지 않고, 할 수 없고, 하지 않을 사람들"이

라고 말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뉴욕 메츠의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는 티보의 성적은 점차 좋아지고 있다. 그의 출루율은 .309에서 .339로 올랐고, 장타율은 .347에서 .399로 올랐다.

티보는 "당신은 당신의 꿈을 좇으라. 시도해보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모든 젊은이들이 일에 대한 실패가 두려워 포기했다가 많이 후회하는 삶을 살기보다 실패를 하더라도 한 번 도전해보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있다. 난 이에 대한 열정이 정말 많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좇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내게도 '플레이트 얼골로 미끌어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과 의심 등이 올라온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건강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이 있지만, 매일을 두려움과 의심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아서 매우 기쁘다. 나를 정의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게다가 난 꿈을 이루며 살고 있고, 가능한 많은 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치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교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양침례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 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이름없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께 갈지어라(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방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람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방언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O. 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통독모임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초등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이명이 담임목사**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찬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침례부 오전 9:30, 11:30  
한양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전 11:30 한국교회(과포)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 중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  
대학원예배 오전 11:00

**오병의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금요일 저녁 8:0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 순복음교회**

예수 사랑으로 열방을 위한 복음전파. ALL IN JESUS 복음의 모든 것을 가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 새소망교회**

예배 성령의 선물로 세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교등부, 대학원부  
한국교회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908-9191 / www.missionways.org  
mc.office.email@gmail.com

주일에 오전 11:3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일에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에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00 (영어예배)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 (젊은이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에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인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장로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목)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 예배 오전 8: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에 1부 오전 7:30 수요일에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짐새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아

**김인철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에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co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목)  
수요일에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끄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아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6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北 김정은 이후 450여 명 처형·숙청... 인권 범죄”

## 북한전략센터 “핵심은 핵무기 아닌 인권”



북한 국경 지역인 단동에 위치한 여성 정치범수용소의 모습. ©오픈도어즈 제공

최근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김정은 정권의 숙청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북한전략센터가 “이는 인권 범죄”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전략센터(North Korean Strategy Center, NKSC)는 14명의 북한 고위관료와 직접 처형을 목격한 5명의 탈북자 등 관계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 후 약 450여 명이 처형되거나 숙청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발표한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북한문제 해결의 핵심은 핵무기가 아닌 인권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에게 반드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특히 지난 2013년 김정은 위원장의 삼촌 장성택 처형 사건, 2017년 이북형 김정남 암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선대와 달리 가족들까지 살해하는 등 이전보다 더욱 무자비한 숙청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책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장성택을 처형할 때 15명 이상이 함께 처형을 당했고, 400여 명이 숙청됐으며, 문서 전달에 관여한 가장 어린 사람들도 예외가 없었다”고 전했다.

강 대표는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문제 해결은 핵 문제가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라는 것을 전 세계가 확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기 전, 이 보고서를 꼭 보고 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김정은에게 말해야 하는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FDD)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숙청 행태가 정권의 존립을 위해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르는 김씨 일가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하며 이는 엄연한 인권 범죄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그는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다면 결국 실패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혜진 기자

# CBN, 사망 1주기 맞아

## ‘빌리 그레함 센터 박물관’ 조명

### “미국 전도를 위한 박물관 됐다”



빌리 그레함 센터 박물관 입구 전경. ©CBN 뉴스 보도화면 캡처

21일故 빌리 그레함 목사의 사망 1주기를 맞은 가운데, CBN 뉴스가 그의 사역이 담긴 박물관을 조명했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사역은 수많은 미국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고, 전 세계 수 백만 명의 삶을 바꾸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의 자문을 맡게 되었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도자 중 한 명이었다.

일리노이주 휘튼대학교에 위치한 빌리 그레함 센터 박물관에는 그의 사역이 정리돼 있다. CBN에 따르면 처음 박물관을 봉헌하지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레함 목사는 “이 박물관이 나에 대한 것이 되어서 안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리 그레함 센터의 에드 스테처 사무총장은 “그레함 목사는 그가 작성한 문서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원했고, 이 박물관이 그레함 목사의 사역의 어떤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 그러나 더 광범위한 복음전파 사역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미국 전도를 위한 박물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지난 1981년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문을 연 빌리 그레함 도서관과 이 박물관이 다른 점은 휘튼대학교 내에 있는 빌리 그레함 센터의 일부라는 점”이라고 전했다. 이 대학은 전도를 위해

기독교인들을 성장시키고 동원하는데 헌신하고 있으며, 빌리 그레함 목사는 지난 1943년 이 대학교를 졸업했다.

스테처 사무총장은 “빌리 그레함은 휘튼대학교의 가장 유명한 졸업생이다. 빌리 그레함 목사와 롯 여사는 휘튼대학교 학생이었고, 이곳에서 만나 결혼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리 그레함 센터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은 학생들에게 가시적·영적 각성을 준다. 그레함 목사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많은 것을 이뤘다. 우리는 이곳을 졸업한 휘튼대학교의 학생들이 예수님의 많은 일들을 하게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박물관은 바울, 존 위클리프, 마틴 루터 등 초대 복음전도자들에게 대한 설명도 담고 있다. 그레함 목사와 관련해서는 그의 초상화와 전도자로서 개인의 삶에 대한 추억을 담은 사진 등이 헌정돼 있다. 그레함 목사의 수 십년 간 사역 역시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스테처 사무총장은 “실제로 이 박물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며 “또 복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온다. 우리는 이들을 계속해서 돕고 있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선교칼럼

### 한국교회는 대부분 불편함을 싫어한다

필자는 시간을 내어 자주 현장을 찾아 나선다. 러시아 내륙 지방의 끝없는 길, 앞뒤로 차가 보이지 않는 눈이 쏟아지는 자작나무 숲길, 몇 시간씩 달리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북음송을 부를 때 바로 이것이구나, 함을 의식하면서 말이다. 자동차로 한 번 출발하면 기본이 왕복 1,000km이다. 서울에서 교회를 섬겼을 때, 진주까지 내려가면 천리 길이었다. 계획을 세우고, 여러가지 짐을 챙기고 결심을 해야 갈 수 있었던 길이었다. 러시아 대륙에서 살다 보니, 1,000km는 그냥 가자 하면서 출발한다.

이것이 나그네 인생길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 생각하는 선교철학 때문이다. 한곳에 머무는 것은 매우 안정적이고 편해서 좋고,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지지 않는가? 그런데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것이 곧 '바벨 콤플렉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떨어져 낯선 환경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른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 입에 맞지 않는 음식, 낯선 사람들, 위험, 20시간씩 자동차 운행, 불안, 기차로 갈 때는 3등칸 24-30시간, 모든 것이 부담이 된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생, 역사의 방향성, 그리고 소망의 본질에 대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잘 살펴보면, 성경은 온통 떠남의 역사이다. 그 이유는 모든 민족이 "주의 백성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선교적 '떠남의 개념'이 없으면 바벨을 형성하게 된다.

#### 바벨에 갇힌 사람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 성과 대를 쌓고 모이기를 힘쓴다. 그리하여 바벨탑을 쌓게 된다. 그 이유를 몇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 하나로 뭉치지 않게 해준다.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셋째, 안정되고 편안한 삶의 추구이다. 우리는 일하고 사는 목적이 좋은 직장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목적이 되어 왔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세상에서 얻지 못한 부와 평안함과 만족감과 위로를 얻으려 한다. 이것이 바벨의 한 모습이다.

바벨에 갇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대체로 민족적이고 안정적이고 전통적이고 율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다친 핍박과 고난을 통해 흠어진 사람들이 모여 세워진 교회 아닌가? 그래서 매우 역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을 불편 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역동적인 선교활동의 결과로 복음을 믿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안정되고 편안한 삶의 추구이다. 우리는 일하고 사는 목적이 좋은 직장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목적이 되어 왔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세상에서 얻지 못한 부와 평안함과 만족감과 위로를 얻으려 한다. 이것이 바벨의 한 모습이다.

#### 바벨에 갇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대체로 민족적이고 안정적이고 전통적이고 율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다친 핍박과 고난을 통해 흠어진 사람들이 모여 세워진 교회 아닌가? 그래서 매우 역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을 불편 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역동적인 선교활동의 결과로 복음을 믿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불편함을 조금도 참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은 어떤가? 바벨에 갇힌 것은 아닐까? 신앙생활이란, 바벨을 포기하는 행위인 것을 생각한다. '안정을 포기하는 선언'인 것이다. 불편함을 통해 타인의 구원을 추구하고 세상의 변화를 희망하며, 모든 백성, 모든 민족, 열방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 선교 현장도 자주 방문해야 한다. 어떤 이는 현장방문 왕복 비행대금을 선교비로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거나 주장하기도 하지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현장에서 경험하고 안락함을 포기하고 나그네 인생의 불편함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학습하는 것이기에,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능력 있는 일일 것이다.

한국교회는 대부분 불편함을 아주 싫어한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도망쳐 버린다. 조금 잘 살게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 보는데, 안락함과 편리함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나와 다른 문화에 접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한민족, 한 울타리 속에 갇혀 살았던 바벨 문화의 포로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 현장을 방문하면서, 여행 기간 한국에서 햇반과 김치를 수십 개씩 먹을 분량을 다 사온다. 된장과 김치에 젖어 있는 문화를 이해는 한다. 이것 역시 바벨 문화의 한 요소이다. 세계화를 이야기하는 한국교회, 이제는 바벨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선교적 삶이란 게 바로 이런 것이다.

## 기다림



김한요 목사  
베델한국교회

기다리는 스케줄이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다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에너지가 됩니다. 기다림은 의미 없이 흘러가는 똑같은 일상의 반복에 활력을 더합니다. 내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 약속이 잡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내일을 기다리는 신나는 하루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생일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해 준다는 엄마의 약속 한마디에, 자기 생일을 기다리던 어린 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흥분된 모습으로 신나게 지내는 모습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활력이 도는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온 가족 해외 여행 휴가 날짜를 잡아 놓은 주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늘 어깨가 무거웠던 식사 준비가 오늘은 요리 하나라도 더하고 싶은 의욕으로 가득차오릅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콧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연구단체에서 17세부터 85세

사이의 23,000명의 행복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55세 전후에 가장 좌절감을 느끼는 반면, 20대와 70대에 최상의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20대의 젊은이들이 누리는 행복은 언뜻 이해가 가지만, 70대에 최상의 행복을 느낀다는 결과 보고는 좌절의 50대(?)를 살고 있는 저에게 또 다른 기다림으로 설레게 만듭니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좌절의 50대를 통과하면서 60대에는 현실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70대부터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구단체의 분석이었지만, 저는 70대가 되면 또 다른 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 힘도 없고, 젊을 때처럼 운동은 못해도 20대가 맞을 수 없는 70대의 꿈같은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기다림의 열매였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 1:4)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다락방에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던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서 탄생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체질상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기다리던 성령님과 함께 태동한 교회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이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록."(히 4:9) 가장 최고의 보상으로 찾아올 '안식'을 저는 오늘도 구체적으로 꿈을 꿉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열고 찾아오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 25:21)라고 말씀하실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달려갑니다.

## 무서운 사람들



박혜성 목사  
남가주헬로교회

오래된 유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인가? 소방수와 맹인과 쇼핑을 마친 아줌마입니다. 왜요? 소방수는 물불을 안 가리니까. 맹인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쇼핑을 마친 아줌마는 불량 다 봤으니까."

그런데 교회에도 아주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안빠지는 집사님과 철저히 십일조하는 권사님과 성경일독 30번 하신 장로님입니다. 집사님의 머릿속에는 새벽기도에 빠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사님의 머릿속에는 십일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교우들의 이름이 빼곡히 들어 있고요. 성경 30독 하신 장로님 말투에는 성경말씀에 무식한 성도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아시스의 성자 프란체스코의 일

화입니다. 프란체스코와 제자들이 함께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 놓은 39일째 되던 날 젊은 제자 하나가 금식 후에 먹을 죽을 끓이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 숟가락을 입에 떠 넣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을 하던 제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그 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은 스승 프란체스코가 유혹

을 이기지 못한 젊은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말없이 수저를 집어 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죽을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란 눈길로 스승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프란체스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 제자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 떠 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나의 열심과 헌신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의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담임목사 청빙

두바이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십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는 '이방의 빛이 되리니'를 사명으로 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 1. 지원자격

- 연령 : 40세 전후
- 학력 : 정규대학 졸업 및 신학대학원 (M.Div) 졸업 또는 이상 소지자
- 경력 : 목사 안수 후 담임 목사 또는 부목사, 목회 경력 5년 이상자(교단 : 제한없음)

#### 2. 제출 서류

- 이력서 ..... 1부
- 자기 및 사모 소개서 ..... 각 1부
- 목회계획서 ..... 1부
-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 1부
- 추천서 (2명 이상 1부씩 제출)(교수 또는 목회자 추천, 및 추천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필히 기재) 추천인이 직접 제출 ..... 2부
-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졸업증명서 (대학교, 신학대학원) ..... 1부
- 목사안수증명서 ..... 1부
- 설교 동영상 파일 1~2편(최근 1년 이내)

#### 3. 서류 제출 기한 3월 15일(금)까지

#### 4. 제출 방법 : 두바이 한인 교회 홈페이지에서

(http://www.dubaikoreanchurch.org)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모든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 dubaidkc@gmail.com 으로 송부

#### 5. 참고사항

- 본 교회 양식만 접수 받습니다. 서류미비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1차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결정 후에도 취소 됩니다.



### 실로암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 공고

**실로암한인교회**  
THE SILOAM KOREAN CHURCH OF ATLANTA

아틀란타 실로암 한인교회는 미국 장로교 (PCA) 교단에 소속된 교회로, Norcross, G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임목사님의 은퇴를 앞두고 기도으로 성도의 본이 되고 그리스도안에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길 담임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지원 자격**

1. 35-50세로 정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미주지역 5년이상 목회경력 (부목,담임)
2.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신분상 허자가 없으신 분
3. PCA(미국장로교회) 교단가입에 걸려서류가 없으신 분
4. 이중언어(한국어,영어)사용이 가능한 분

**제출 서류**

1. 이력서 및 추천서 (추천인 2인 성명, 관계 및 연락처 포함)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목사안수 증명서
3. 자기소개서(신앙간증, 목회 비전 및 계획서, 가족소개 및 가족사진)
4. 최근 1년 이내 설교 2편 동영상 (CD, DVD, USB, Web Link)

**접수 일정**

제출마감: 2019년 3월 15일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은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접수 방법**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모든 제출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접수바랍니다.  
( 반드시 본교회 신청서 양식으로 접수해야하며, 이메일접수를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

주 소 : 1870 Willow Trail Pkwy NW, Norcross, GA 30093  
홈페이지 : http://www.siloamatlanta.com  
이 메 일 : jo5points@yahoo.com

실로암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 전도사 청빙

뉴저지 은혜와 사랑교회 (미국장로교, 담임: 소기범 목사)에서 아동부 전도사님을 청빙합니다.

- 지원자격 : M.Div, 학위 소지 혹은 재학 중인 분
- 급여 : \$1,200/월
- 사역 내용 : 아동부 목회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보내실곳 : jcworld21@hotmail.com
- 문의 : 목회부장 (201-522-3011)
- www.gracelovechurch.org



55 Magnolia Avenue Tenafly, NJ 07670  
Tel: (201)567-3535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주보제작, 교회학교, 머그컵&텀블러, 목회보고, 목회기념품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ORION AUTO SERVICE**

4SE CERTIFIED  
 •SMOG •INSPECTION  
 •TUNE-UP •BRAKE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2-4669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VALERO**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프로지 PRO-Z**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를 1%만 줄어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병증) 등이 줄어듭니다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폐교과대학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에서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정관리위원 개업센터 수석 연구원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DA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주님미디어 새해맞이 이벤트

##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패키지**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Stand X-Banner \$65  
 거치대포함 \*사이트에서 샘플선택

Retractable Banner \$140

160 (디자인 포함)  
 A형 스탠드배너

NEW YEAR EVENT

말씀 액자 \$35  
 16x16inch 기준

\*주님미디어에서 직접 쓴 손글씨로 제작된 말씀액자입니다.  
 주님미디어에서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주보제작, 교회학교, 머그컵&텀블러, 목회보고, 목회기념품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 “탈북자들과 생활한 지 25년째, 여전히 안타까운 현실”

복음통일 전문가 세미나 연합 집회를 위해 LA를 방문한 천기원 목사(두리하나 대표)를 2월 14일 사랑의빛선교교회(윤대혁 목사)에서 만났다.

새로운 사업을 찾을 겸 중국 두만강변에 서게 된 천기원 사장은 그의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의 삶을 어떤 길로 이끌지 짐작도 못하고 있었다.

거의 25년 전인 1995년,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에 들어갔던 천기원 사장은 두만강변에서 12월의 차디찬 얼음물에 잠겨있던 신발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이 추운 날씨에 왜 신발을 벗고 낚시를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시체였다. 놀라서 가이드에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물었을 때, 돌아온 태연스러운 대답, “늘 상 떠내려 오는 탈북민 시체”라는 것.

얼마후 구걸하며 따라오는 어린이들에게 돈을 주었는데, 공간이 나타나 곧바로 아이들을 구타하기 시작했다. 굶기야 아이들 머리에서는 피가 솟았다. 몇 시간 후 한 젊은 여성이 남성들에게 끌려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보고만 있었다. 의아해서 물어보니 가이드는 “탈북 여성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입자”라고 했다. 누군가에겐 일상이 되어버린 광경이 그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게 했다.

그리고 4년이 지났다. 신학생이 된 그가 북한선교를 위해 중국 땅을 다시 밟았는데 그곳에서 펼쳐진 광경은 4년 전과 다름이 없었다.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천기원 목사가 탈북자 지원단체 두리하나를 설립해 지금까지 1,200명 이상의 탈북자를 구출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다.

-어떻게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셨는지.

박상원 목사님이 전체를 준비하셨고 저는 임현수 목사님을 통해 참여하게 됐다. 각 강사 분들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을 느꼈다. 영역별로 모여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각 영역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사역을 공유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본사가 한국에 있는지.

한국 방배동에 '두리하나' 본부가 있고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에 '미주 두리하나'와 뉴멕시코 주 산타페(2016년 5월 21일에 설립)에 'Durihana Mission'이 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역이 조금씩 나뉘져 있다. 워

싱턴 D.C.에서는 미국에 정착하는 탈북민들을 돕는 사역을 한다.

탈북민 가운데는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탈북민이 있다. '두리하나'는 2006년 5월 5일 부시 대통령의 특명으로 최초로 미국에 난민 자격을 얻은 6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30명 정도가 미국에 입국하여 정착 5년여 만에 대부분이 시민권을 받았다. 한국에서 온 탈북자도 7~800명 정도가 된다. '미주 두리하나'는 1년에 한 번 각 주에 흩어져 살아가는 탈북민들을 초청하여 수양회를 가진다. 올해가 12회째다.

한국 방배동에 소재하는 '두리하나' 본부는 교회와 탈북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기숙형 신앙공동체, 대안학교인 '두리하나국제학교' '와글와글 합창단' 등도 있다. 탈북 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와글와글 합창단'은 예술의 전당, 청와대와 사랑의 교회, KBS방송국 등에 출연하여 공연을 하기도 했다.

-타국에서 온 탈북민들을 연결해주는 사역이란?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탈북 여성은 쫓겨 다니고 팔려 다니며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한국이나 미국으로 건너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정착지원을 하고 있다.

-사역하며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다면?

탈북자들과 생활한지 25년이 되어 가는데 처음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얼음물에 죽어 있는 탈북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7~8살 어린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데 중국 공간이 곧바로 머리에 피가 터지도록 그 아이들을 때리는 모습을 봤다. 탈북 여성이 남성들에게 차에 끌려가며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탈북자인데 잡아가는 사람이 입자'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8년 감금된 채 성인화상 채팅 강요 당해

얼마 전 BBC 코리아에서 취재를 해 화제가 된 사건이다. 8년 전부터 아파트에 갇혀서, 화상채팅이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것인데 여성들이 몸을 보여주는 일을 해야 했다. 안에서는 문을 열수 없도록 갇혀 있고 밖에서 문을 열어 줘야만 나올 수 있기에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탈북민들은 20년 전이나 지금도 변함없이 인신매매와 감금을 당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처음 본 모습이



탈북자 선교, 지원 단체 두리하나 대표 천기원 목사

25년 전인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 민족이 이런 모습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미주에서 복음통일 세미나를 새로 열었다. 미주 한인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 교회는 탈북민 구출과 복음통일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남과 북은 같은 민족으로 분명히 동일은 될 것인데 어떤 통일이 될 것인가? 지금 상태로 통일이 된다면 대박이 아니라 재앙이다. 10년이면 움직이지 않는 강산도 변한다는데, 감정적인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환경 따라 마음이 변하는데 70년이란 세월이 흘러 남북이 문화, 언어, 사상 등 너무 많이 달라졌다.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서로 이야기했다.

우리 민족이 준비된 통일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알 것 같은데 너무 모른다. 70년 동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전혀 다른 체제 속에서 서로의 삶의 방식은 이미 뿌리 깊게 문화화 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은 수직문화에 젖어 있다. 반면, 미국은 수평문화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수직문화에서 처음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몇 살일까', '고향은 어디일까', '가족은 어떻게 되나'에 관심을 갖는다. 이게 해결 되어야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쉽게 이것을 물어보고 단정히 물어본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답답하다. 그러나 수평문화는 그렇지 않다. 나이를 물어보면 안 되고 결혼했는지 물어보면 안 된다. 어제 바로 이런 실수를 했다. 세미나 때 얘기를 데리고 온 집사님이 계셔서, '남편은 출근하셨

나?'고 물었더니 좀 불편해 하셨다. 싱글 맘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직문화가 너무 익숙해서 이런 실수를 한다. 이처럼 북한 사람들과 우리는 문화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남과 북이 만나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서로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우리는 돕는다고 생각...북한 사람들은 깔보고 무시했다고 오해

우리는 북한 사람에게 반갑다고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자신을 깔보고 아프게 하고, 무시했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고향의 부모가 걱정되고 신분이 탄로 날까봐 말을 못했는데 수직문화인 우리는 그들 부모의 안부를 물어보고 가족들의 상황을 물어보면 이들에게 아픈 곳을 찌르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 사람이 거짓말을 익숙하게 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처를 받는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흠쳐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다. 내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생존 문제에 있어서 윤리는 그

다음 문제다.

흠쳐 먹고 남을 속이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러한 삶이 문화가 되었다. 보편화가 되었다. 정직하고 싶은데 한국 사람이 수직문화에서 수평문화를 이해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습관화된 문화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이러한 행동이 자신도 모르게 문화처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서로의 문화를 알아 가자는 것이다.

탈북민 연결해 주려 교회에 연락... 어떻게 교회가 사람을 내쫓는가.

서로 다른 문화차이로 인해, 한국이나 미국 내 한인교회에서도 실망과 갈등의 골이 깊어 탈북자는 안 만나고 싶다고 한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다. 탈북민을 연결해 주려고 교회에 연락하면, 탈북민 선교를 안 하는 교회라고 말한다.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을 내쫓는가. 이게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갈등의 골을 메우자는 것이다.

토마스 맹 기자



아파트에 감금돼 성인화상채팅을 강요받던 두 탈북민이 두리하나 선교회의 도움으로 밧줄을 타고 아파트에서 탈출하고 있다. 이들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의 도움으로 천기원 목사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 ©BBC 코리아

##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입학/편입생 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에서 겨울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모집과정

#### ◆학사 과정

- 신학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 ◆석사 과정

- 교역학석사
- 신학석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 ◆박사 과정

- 신학박사
- 선교학박사
- 기독교상담철학박사
- 기독교교육철학박사

등록상담전화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신입생 | 편입생 모집

참,(진리의 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213-272-6031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A, CA 90057 | TEL: 310-678-6836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 213-272-6031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 한국 교회와 3·1 독립운동 (IV)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그러하여 마침내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 중 29인이 참석하여 역사적인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자기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명월관 주인을 시켜 종로 경찰서에 연락함으로써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김선주 목사는 당일 황해도 장연교회에서 사경회를 인도하던 중, 거사가 단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상경하여 대표들이 종로경찰서에 구금된 것을 확인하고는 그곳으로 가서 함께 구속되었다.

한편 파고다에서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민족 대표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들이 나타나지 않자, 경신학교 졸업생이며, 해주(海州) 교회학교 교사였던 정재용(鄭在鏞)이 연단 위에 올라가 그가 가지고 있던 독립선언서를 읽어 내려갔다. 읽기를 끝내고 그는 '대한독립만세'를 힘차게 외치고 군중들도 따라서 10년간 외쳐 보지 못했던 '대한독립만세'를 목청이 터져라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나서 군중들은 서서히 종로 거리로 나가면서 평화적 시위를 시작하였다. 이 때 운동의 지도자들은 군중들에게는 아래와 같이 철저한 비폭력을 호소하였다.

.....당신들은 무엇을 하든지, 일본인들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고, 주먹으로 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야만인들의 짓이다. 누구든지 그런 행동을 하는 자는 독립운동에 위력을 가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점을 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 시위 대열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망라하여 참여했고, 신앙과 종파의 차이 없이 모두가 이에 참여한, 문자 그대로 거족적인 시위요, 민족의 함성이었다. 이날 4~5십만의 대중이 온 종일 시위를 벌였으나 단 한 건의 폭력 시위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독립선언식은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평양, 진남포, 안주, 선천, 의주, 원산 등지에서도 동시에 행해졌다. 평양에서는 장로교 총회장이었던 김선두(金善斗) 목사를 필두로 강규찬(姜奎燦), 이일영(李一永) 등이 중심이 되어, 평양의 6개 교회가 연합하였고, 고종(高宗)황제의 인산(因山)을 기해 약 3천 명의 교인들이 숭덕학교에 모여 황제의 추모 예배를 드렸다. 예배가 끝나고 김선두 목사는 교인들에게 그대로 조용히 남

아 있으라고 요청한 후에 독립선언서를 읽기 시작하였다. 읽기를 마친 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평화적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당시에 평양 장로회신학교 교장이었던 마펫 선교사는 ".....이 님새 동안 (3월 1~5일)에 내가 만난 모든 한국인들과 내가 관찰한 시내 안팎의 가운데서 나는 어떤 한국 사람도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고 기록하였다. 총회장 김선두 목사는 이 일로 체포되었고 그해 가을에 모인 장로교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자 부회장이 마펫 목사가 사회를 대신 맡았다.

진남포에서는 감리교 학생 120여 명이 예배당에 모여 시위를 주도했다. 선천에서는 신성학교 선생들과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선천역 앞 오리정 광장에 모여 김지웅(金志雄) 선생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시작하였다. 이들이 그곳 경찰서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그 시위대의 수가 수천 명에 이르게 되자, 일경은 위협을 느껴 시위대에게 발포하였고, 이때 십여 명이 생명을 잃었다. 함경북도 성진(城津)에서도 그곳 기독교 학교인 보신(普信)학교 학생들이 중심으로 시위를 벌여 일본인들의 거주지로 행진하였고, 경북 대구에서는 이만집(李萬集) 목사 주도로 계성(啓聖)학교와 신명(信明)학교 학생들이, 부산에서는 일신(日信)여학교 학생 주도로, 전주에서는 신흥(新興) 학교 학생 주도로, 광주에서는 송일, 수피아, 광주농업학교 학생들의 주도로 시위가 일어났다.

대개 기독교 학교가 있는 곳에서는 그들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퍼져 나갔다. 처음에는 이렇게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시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경찰과 헌병들이 시위대에 대해 총칼과 곤봉을 마구 휘두르며 폭압적 진압을 하자, 군중들도 자기 방어적 위치에서 이들에게 폭력으로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지방에 따라서는 시위 진압군과 경찰에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을 비롯하여, 헌병대, 경찰서, 각급 관공서들을 습격하고 파괴하는 사태로 발

전하기도 하였다.

당시에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는 종교 단체밖에 없었으므로 아무래도 종교 단체들, 즉 기독교, 천도교, 그리고 불교가 연합 또는 단독으로 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곳이 많았다. 3월 1일에 시작된 시위는 그 후 약 6개월 동안 진행되어 수 백 만의 인원이 동원되었고 그 형태도 다양하여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일제의 무단통치에 억눌려 있던 민중들의 울분과 신앙에 입각한 기독교인들의 불의에 대한 저항의식과 맞물려 이 시위운동은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되었다. 이렇게 계속된 시위는 필연적으로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 교회의 피해

약 6개월 동안 진행된 전국 시위운동의 많은 부분을 기독교인들이 주도했고, 독립선언서를 운반하며, 태극기를 제작, 살포하는 임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어떤 단체나 종교보다도 피해가 극심했으리라는 점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다음의 도표에서 각 단별 체포자 수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종 단	체포자 수	%
천도교, 시천교	2,200명	11.8
불 교	220	1.1
유 로 교	346	1.8
장 로 교	2,468	13.3
감 리 교	560	3.0
기타 기독교	320	1.7
가 톨 릭	55	0.3
타 중 교	21	0.1
무 중 교	9,304	50.0
종 교 불 명	3,007	16.2
합 계	18,501	100.0

당시에 조선에는 일제의 1개 사단 병력과 2만 명 이상의 헌병, 그리고 무수한 헌병 보조원들과 경찰이 있었으므로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보복은 혹독하였다. 당시에 평양에 주재했던 한 선교사 부인이 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수많은 일제의 관리들이 교회당에 와서 종탑을 파괴하였고, 교회당 안의 모든 유리창을 박살냈고, 모든 성경과 찬송가 그리고 교회학교의 명부와 교회의 서류들을 파괴하였으며, 교회 직원들을 체포하고 옷을 벗긴 후 교회당 뜰에서 구타하였다.

이 사건의 모의, 주도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일제는 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를 시작하였고, 검거된 인사들에게 모

친 고문을 감행했다. 한 여신도가 직접 당한 고문의 증언이 남아있다.

.....나는 평양에서 3월 2일 체포되어 경찰에 구금되었다. 그 감옥에는 여자들도 여럿 있었고 남자들도 많이 있었다. 경관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인가를 자세히 물어 보았으나.....거기에는 열두 명의 감리교 여자들과 두 명의 장로교 여자 및 한 명의 천도교 여자가 있었다. 감리교 여자 중 세 사람은 전도부인이었다. 그런데 경관들은 체적으로 우리 여자들을 내리치면서 옷을 다 벗기고, 벌거숭이로 여러 남자들 앞에 세워 놓았다. 경관들은 나에게 대해서는 길거리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죄목밖에 찾지 못했다. 그들은 내 몸을 돌려 가면서 마구 구타해서 전신에 땀이 흠뻑 젖었다. ....내 양 손은 뒤로 잡혀져서 꼬꼬 묶었다. 그리고는 내 알몸을 사정없이 때리고 땀이 흐르면 찬물을 끼얹곤 했다. 춥다고 말하면, 그 때는 담뱃불로 내 살을 지졌다. ... 어떤 여자는 정신을 잃도록 심한 때를 맞았다. ....또 한 전도부인은 두 손을 다 묶었을 뿐만 아니라 두 발을 꼬꼬 묶인 채 기둥에 매달려 있게 했다. 우리들은 성경책을 다 빼앗기고, 기도는 고사하고 서로 말도 못하게 했다.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무서운 육과 조롱을 우리는 다 받았다.

개인과 교회가 당한 수난을 어찌 글로 다 적을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당한 대표적 사건 몇 가지만 적어 보면, 평남 강서 학살사건, 정주 학살 방화사건, 서울 심자가 학살사건, 의주 예배당 방화사건, 천안 병천 학살사건 등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수원 제암리(堤岩里) 감리교회에서의 학살사건이다.

각지에서 만세 시위가 계속되던 4월 15일 오후 2시경에 일본군 중위 유전준부(有田俊父)의 인솔로 일단의 군인과 경찰들이 이 마을에 들어 닥쳤다. 그들은 교인들을 모두 모아 손을 꼬꼬 묶어 예배당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당에 불을 질렀다. 불속에서 밖으로 뛰쳐나오려는 사람들을 부녀자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총격을 가하여 사살하였다. 이런 천인공도할 만행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벌건 대낮에 자행되었다."

통계적으로 보면, 1919년 3월부터 5월 30일까지 사망자 7,509명, 부상자 15,961명, 체포된 자 46,948명, 교회 파손 47개 소, 학교 파손 2개 소, 민가 파손 715채였으며, 1년 뒤인 1920년 3월 1일까지 사망자 7,645명, 부상자 45,562명, 체포자 49,818명, 가옥 소각 724채, 교회 소각 59개 소, 학교 소각 3개 교 등이었다.

일제는 길거리에서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기독교인인가를 묻고 확인되면 체포하고 비기독교인이라면 놓아 주는 등 집중적으로 기독교인들만을 체포하였다. 특히 장로교회의 피해를 컸는데, 총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누락된 것을 감안하지 않고도, 체포 3,804명, 체포된 목사, 장로 134명, 지도자 202명, 체포된 남자 신도 2,125명, 여자 신도 531명, 매 맞고 방면된 자 2,162명, 사살된 자 41명, 매 맞고 죽은 자 6명, 파괴된 예배당 12동 등이었다. 평양 장로회신학교도 독립운동의 여파로 개교하지 못했다.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 2,000만의 1% 정도 밖에 안 된 상태에서 기독교인 체포자가 17.6%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교회가 당한 수난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파괴된 제암리 교회 (© 국가보훈처) 1919년 3.1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같은 해 4월 15일 일본이 수원 화성시 제암리에 사는 민간인 20명을 교회에 가두고 예배당과 민가에 불을 질러 23인이 잔인하게 목숨을 잃었다.

## 2019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진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개설
- 임학상담: 조영호 박사 7628(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9301 Fax (323)643-9302  
www.aeu.edu/info@aueu.edu,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임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 침묵으로 예배당 도는 北의 그루터기 신앙(上)

한경직 목사님의 부탁 '김복순을 찾아 달라'  
 北 교인, "통일이 되면, 이곳에 다시 교회를 재건할 계획이 있는가"  
 주일이면 예배당 자리를 돌며 침묵으로 주일 성수  
 북한으로 밀수된 성경 통해 자생적으로 그리스도인된 청년

복음통일 전문가 세미나가 진행  
 되던 2월 14일, "북한지하교회의 실  
 체와 성도의 신앙"을 강연한 강석  
 진 선교사를 세미나 장소인 사랑의  
 빛 선교교회에서 만나 북한지하교  
 인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  
 았다.

강석진 선교사는 1992년 압록강  
 건너편 중국 단둥 지역에서 북한선  
 교를 시작해 북·중 접경지대에서 탈  
 북민과 북한 지하교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왔으며, 극동방송을 통  
 해 대북 설교 방송과 통일 관련 프  
 로그램을 진행했다. 현재 '북방선교  
 회', '중주양의문교회', '새하늘선교  
 회' 소속되어 선교 담당 목사로 섬  
 기고 있다. 2015년 북한 실존 인물  
 을 소설화 한 <오래된 소원: 반세기  
 만에 평생 소원 이룬 북녘의 나오미  
 감동실화>를 펴낸 바 있다.

### 사역을 소개해 주세요.

92년 신의주 건너편인 압록강 단  
 둥지역에서 북한 선교를 시작했습  
 니다.

저는 백석 교단 소속 선교사입  
 니다. 91년도에 하얼빈 지역 조선  
 족 처소 교회를 순회하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92년도에 다시 들어가서 돌  
 아오는 길에 중국 단둥에 들렀습니  
 다. 그것이 북한선교를 하게 된 계  
 기였습니다. 그때가 92년 10월 10  
 일. 이른 아침에 압록강 강변에 나  
 가서, 건너편 신의주를 보면서 하나  
 님께 기도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새벽녘이었는데, '하나님 붉은 해가  
 떠올라 어둠의 땅을 밝혀 주고 있  
 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해가 떠올라  
 서 북한의 주민들을 비취주소서'라  
 고 기도했어요. 그냥 구경하러 갔다  
 가, 하얼빈교회에 조선족 교회 짓는  
 일을 위해 갔다가, 그곳을 보고 그  
 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  
 가 북한 선교를 하게 된 계기가 되  
 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그 분이 피난 오  
 시기 전, 신의주의 제일교회 목사  
 님이셨어요. 저는 (북한이) 공산화  
 되기 전에 영락교회 청년부에 있었  
 고요.

당시 한경직 목사님께 보고를 드  
 렸어요.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압록강 건너편의 신의주 지역  
 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1933년에 단둥 제 2 교

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옛날에는 신의주하고 단둥하고 같  
 은 노회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신의주 제 2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보린원이라는 고아원을 하셨는데  
 남쪽에 피난 올 때 꼭 데리고 오고  
 싶으셨던, 김복순이라는 다리 하나  
 가 없는 고아가 있었다고 하셨습니  
 다. 그러면서 제게 '강 목사가 단둥  
 에 다시 가서 '김복순'이 살아 있는  
 지 확인해보고 있으면 데리고 오라'  
 고 부탁하셨습니다.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  
 는데 너무나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영락교회 집사님과 (압록강 단둥  
 지역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한 목  
 사님이 이 부탁을 하실 때 연세가  
 90세가 넘으셨었는데, 저희 옆에 앉  
 아 계시던 큰 따님이 '우리 아버님  
 은 그분(김복순) 얘기만 나오면 울  
 먹거린다'며 '지금 살아 계시다면,  
 연세가 60쯤 됐을 걸요'라고 하셨  
 습니다.

김복순을 찾아달라고 하셔서 찾  
 으러 갔어요. 단둥에 도착해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식  
 당 아주머니의 남편(박 사장)이 신  
 의주를 왔다 갔다하면서 무역을 하  
 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남편  
 분을 만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죠.

제가 '가능하겠습니까?' 묻자, 그  
 분이 '어렵지 않겠습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들에게 찾아보라고 하면 찾을 수 있  
 을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박 사장님도 교회 다니세  
 요'라고 말하며 그분을 전도하기 위  
 해 성경책을 건네 줬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올 수 없지만 사진이라도  
 찍어 오세요. 한경직 목사님이 찾고  
 계신 분이 아직도 살아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한 목사님이 만족하실  
 겁니다'라며 부탁했습니다.

그 양반이 신의주의 무역을 하는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에 한 목사님  
 이라고 훌륭한 분이 계신데 김복순  
 이라는 분을 찾고 계신다.'고 부탁  
 을 하셨습니다. 먼저, '해방전에 예  
 배당을 다녔던 분들이 있는지' 찾아  
 다녔고 해방전, 한경직 목사님이 담  
 임으로 계실 때, 신의주 제일 교회  
 에 중등부 교사였던 할아버지를 찾  
 아냈어요.

신의주 무역회사를 다니는 북한  
 사람의 도움으로 밤에 몰래 찾아가  
 서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도착  
 해, 낯선 남자 둘이 와서 밤에 와서



북방선교회 소속 강석진 선교사

문을 두드리니 할아버지가 잔뜩 긴  
 장해서, '무슨 일 때문에 왔습니까'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박 사장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  
 고 박 사장이, 제가 전도하면서 준  
 조그만 성경책을 꺼내며 '할아버지,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자, 할아버지가 마음의 경계를 풀  
 고 박 사장을 신뢰하게 되면서 '우  
 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면서 신앙  
 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라며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 방에 나무 껌이 있었  
 는데 그것을 열더니 보따리를 꺼내  
 셧습니다. 그 안에는 해방전에 신의  
 주 제일교회에 다니면서 찍은 사진  
 들, 교회의 주보와 교회에 관련된  
 인쇄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  
 이 발각되면 큰일 나는데, 공산화가  
 되어서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  
 하교회 교인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할아버지가 중요한 얘기를 하  
 셧습니다. '주일 날이면 우리가 다  
 녀던 예배당을 돌면서 침묵으로 주  
 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두 가지 부  
 탁을 하셨습니다.

'해방이 되자 바로 공산화가 되자  
 자유를 빼앗긴 교회들이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남쪽으로 내려간 교회  
 가 다시 이곳에 교회를 재건할 계획  
 이 있는지. 앞으로 통일이 되면 신  
 의주에 교회를 재건할 계획이 있는  
 지 알려 달라'고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시다면 90이 넘었는데 증거  
 를 갖고 오세요. 교회 재건 계획과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갖고 오십시오.'

그 할아버지와 사진을 찍어서 한  
 경직 목사님께 갖다 드리며 이 이야  
 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사건을 통  
 해 50년 동안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지킨 지하교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

하게 된 것이죠. '공산화를 해서 크  
 리스천이 모두 없어졌고, 지하교인  
 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생각했었는  
 데... 가능성을 배제했어요. 그런데  
 '김복순을 찾아달라'는 목사님의 부  
 탁에 지하교인의 존재가 밝혀졌어  
 요. 그분은 '통일이 되면 무너져 버  
 린 교회를 남쪽에 내려갔던 사람들  
 이 다시 돌아와서 남은 자들과 함  
 께 교회를 재건하는 꿈'을 갖고 계  
 셧죠. 이 부분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서 그 땅에 남은 사람들, 그루터기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  
 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  
 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  
 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  
 루터기나 하시더라"는 이사야 6  
 장 13절 말씀처럼 예배당을 다 없  
 어버렸는데도 그들의 신앙은 그대  
 로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  
 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복음 통일 세미나를 통해 느낀 점을 나눠주세요.

왜 금년에 이것을 기획했냐면, 금  
 년이 3.1 만세운동 100주년이고 국  
 가적인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3.1  
 절 당시 있던 것들을 발굴하면 계속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동경 유학생 11명 대표가 작성한 독  
 립 선언문을 여대생 2명이 한국에  
 갖고 들어와서, 그것이 3.1만세 운  
 동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20만명도 한국 기독  
 교 인구가 안됐지만 나라를 찾고자  
 하는 자주 독립의 선지자 의식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  
 다. 그래서 당시 민족을 각성시키는  
 선지자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분단한 지 70년이 지났는데 당

시 크리스천들은 역사를 이끌어가  
 는 자들이었듯이 시대에 '기독교인  
 들이, 한국 교회가 선구자적인 역할  
 을 하자', '믿음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을 본받아서 통일의 시대를 열어  
 가자'는 취지에서 이 모임이 시작되  
 었습니다.

박 목사님과는 몇년 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저를 여러 강사 중의 한  
 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번 세미나  
 에서는 '지하교회의 사례와 그들의  
 신앙' 그리고 '지하교회의 교회사적  
 인 역사적식과 지하교회가 통일을  
 여는 데 어떤 사명이 있는지' 그 두  
 가지 강좌를 맡았습니다.

### 지하교회는 어떤 상황인가요?

지하교회를 15년 전만 해도 인정  
 하지 않았습니다. 탈북자가 많아지  
 고 한국 선교사들이 국경지대를 통  
 해 사역을 하면서 지하교회가 있다  
 는 것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하나  
 님께서 그 사역을 계속 하게 하셨는  
 데.. 나이 많은 사람뿐 아니라, 30대  
 (지하교인) 청년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자생적으로 그리스도  
 인이 된 경우였습니다. '어떻게 예  
 수를 믿고 성경을 구했냐'고 물어  
 봤더니, 밀수꾼을 통해서 성경이 신  
 의주로 들어오고, 깜깜한 밤에 어떻  
 게든 성경을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니 압록강과  
 두만강 지대에서 그런 방법으로 성  
 경이 들어가고, 호기심으로 성경을  
 보다가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  
 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뿐 아니라 친구들도 돌려 보고, 관  
 계된 책도 보게 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일반 노래에,  
 '장군님', '수령님' 대신 '예수님'을  
 넣어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음호에 이어서] 토마스 멩 기자

## 평화의 시가 통일의 꽃길 되리라

| 소강석 지음 |

304면 / 13,000원

새벽 성루에서 조국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였던 하박국처럼  
**민족의 평화통일을 갈망하며 절규하였던 가난한 신학생**  
 광야의 영성과 현대적 지성, 예술적 감성의 조화를 이루며  
 신도시 대형교회 부흥을 이룬 후  
 개교회 성장을 넘어 사회적 기독교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국가조찬기도회 설교자로서 평화통일의 봄을 외쳤던 목회자**  
**소강석목사, 그가 시로 써 내려간**  
**화해와 용서, 평화의 여정이 펼쳐진다.**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36년 월간 문예서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  
 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아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  
 히 2006, 2017 한국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국제명화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찬상  
 병문화대상, 윤중주문학상을 수상하였고 단국대  
 학교 명예문학박사를 수여 받았다. 또한 대한민  
 국 국민훈장 동백장, 대한민국 보훈문학상을 받  
 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정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전  
 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영혼의 진주를 사세요  
320면 / 13,000원

예수 마나이가 되라  
320면 / 13,000원

새롭게 하소서  
236면 / 13,000원

미래교회 서바이벌  
320면 / 12,000원

**쿰란출판사** • 한국인터넷주소 : 쿰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cumran.co.kr  
 • 서울 중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내)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 의료비 대책 세우셨습니까?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의료비 나눔을 통해 의료비 걱정을 해결합니다.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성경적인 삶을 사는 4만여 성도들이 참여해, 짐을 서로 지라 (갈 6:2)는 성경 말씀에 따라 의료비 나눔과 중보 기도로 서로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선교회 산하에서 1996년에 시작된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지난 23년 동안 문제없이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며, 소수민족 단체로는 유일하게 미 보건복지부 산하 CMS(Centers for Medicare&Medicaid Services)로부터 승인받은 의료비 나눔 사역 단체입니다.

## 23년 역사의 CMM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는 건강합니다!

- 저렴한 회비로 다양한 의료비 지원 (질병당 \$150,000)
- 미국 내 의사나 병원 제한 없이 지원
-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 골드플러스 회원은 건강검진비 지원 (\$500/1년)
- 새 회원 소개 시 회비 크레딧을 주는 Member Referral 제도
- 장례비 보조를 위한 Life Plan (사망시 평균 회비의 100배 지원)
- CA 샌디에고 인근 라모나 기도원/쉼터 이용시 할인 혜택

새 회원을 소개하면  
회비 Credit 을 드립니다.

Life Plan  
회원 사망시 장례비\* 지원

\*평균 회비의 100배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인	\$175	\$135	\$80	\$40
2인	\$325	\$260	\$160	\$80
3인 이상	\$425	\$385	\$240	\$120
본인부담금(1인당)	\$500/Year	\$500/Incident	\$1,000/Incident	\$5,000/Incident
지원금/질병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의료 보험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입니다. 비싼 보험료, 높은 디덕터블로 꼭 필요할 때 도움 받기 힘든 일반 의료보험과 비교해 보세요.

##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p><b>저렴한 회비</b> 월40불부터 가입 가능 (자녀 1명만 내면 나머지 자녀 무료)</p>	<p><b>낮은 본인부담금</b> 본인부담금 이상 의료비 할인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p>	<p><b>다양한 의료비 지원</b> 프로그램에 따라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응급실, 처방약, 임신 및 출산, 입원/수술비 등</p>
<p><b>골드플러스건강검진비지원</b> 매년 \$500 건강 검진비</p>	<p><b>의료비 지원금</b> 질병당 \$150,000</p>	<p><b>Burden Sharing</b> 15만불 이상 의료비는 전 회원이 함께 나눠 100만불까지 지원 가능</p>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cmmlogos.org](http://www.cmmlogos.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MM 캘리포니아 가입문의:  
 직통: 714-333-7487 Email: [sungaeshin](mailto:sungaeshin)  
 캘리포니아 사무실: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인터넷가입 [www.cmmlogos.org](http://www.cmmlogos.org)

